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03045)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 | |
|-----------------|-------------|------------|
| 03~05월 | 09:00~18:00 | 17:00까지 입장 |
| 06~08월 | 09:00~18:30 | 17:30까지 입장 |
| 09~10월 | 09:00~18:00 | 17:00까지 입장 |
| 11~02월 | 09:00~17:00 | 16:00까지 입장 |
| 05~08월 주말·공휴일 | 09:00~19:00 | 18:00까지 입장 |
|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 09:00~21:00 | 20:00까지 입장 |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11

NOVEMBER 2015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November

2015년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일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November

2015년 11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1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November,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20회

이명자 전통춤연구회 '우리춤 공연'

"Korean Dance Performance" Performance' by Lee Myeongja Traditional Dance Society

11.07.



제921회

가을 향기와 색(色)에 물들다.

Autumn, drenched with scent and color

11.14.



제922회

통소다

Tungsoda

11.21.



제923회

김광자의 민속무용

Folk Dance by Kim Gwangja

11.28.

11월 일요일 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November,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5년 11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84회

전통예술원 '유흥'의 有~흥!!

Have~Mirth!! by "Uheung" from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11.01.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11 NOVEMBER 2015
한미당



이명자 전통춤연구회 '우리춤 공연'

"Korean Dance Performance" Performance' by Lee Myeongja Traditional Dance Society

2015. 11. 0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춤을 정립한 거장 故한성준을 시작으로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 그리고 태평무 전수조교 이명자로 이어진 우리춤의 맥을 이어가는 자리로 다양하고 우수한 우리 전통춤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춤추는 사람의 감흥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며 멋과 흥이 있는 '즉흥무'로 막을 연다. 이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화려한 발놀림이 일품인 '태평무', 한국 전통적인 모습의 아낙네들이 노동의 고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는 듯한 '키춤,물동이춤', 여백의 수묵이 드리우고 학처럼 고고한 선비의 흰 도포자락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한량무', 정중동(靜中動)의 의미가 매우 섬세하고 비중있게 구성된 대표적인 춤으로 한국인의 한(恨)과 신명을 단아한 멋으로 풀어내는 '살풀이', 마지막으로 여인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장고춤'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In this program, performers present diverse and exquisite Korean traditional dance pieces that are passed down from the last Han Seongjun who established Korean traditional dance to a bearer of Taepyeongmu Kang Seonyeoung and an Taepyeongmu initiator Lee Myeongja.

'Taepyeongmu' wishing for great peace of the country with elaborate foot movements lifts the curtain. 'Impromptu dance' showing a dancer's spontaneous moves and artistic expression, 'Kichum and Muldongichum' describing weariness and pleasure of Korean women's labor will be followed in sequence. In 'Hallyangmu', a male dancer dressed in white gown shows a crane like elegant movements. The most representative dance piece of Korea 'Salpurichum' illustrates sorrow and merriment of Korean people with the highest perfection of Jeong-Jung-Dong(literally, motion in stillness). 'Janggochum' displaying the mirth and excitement of a female dancer will conclude the entir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즉흥무 Impromptu dance
- 02 태평무 Taepyeongmu
- 03 키춤, 물동이춤 Kichum, Muldongichum
- 04 한량무 Hallyangmu
- 05 살풀이 Salpurichum
- 06 장고춤 Janggochum



대표 이명자(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전수교육조교)
출연 이명자, 박성아, 이현숙, 정소연,
김정아, 하승희, 백지연, 박주희,
구효진, 이소망

가을 향기와 색(色)에 물들다.

Autumn, drenched with scent and color

2015. 11. 1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조남규·송정은 무용단이 1991년 창단 이래 극찬을 받은 전통 작품과 창작 작품으로 <가을 향기와 색(色)에 물들다.> 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꾸몄다.

첫 무대는 농악장단에 맞추어 흥과 신명으로 악기와 춤이 하나가 되는 '장고춤'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즉흥적인 '부채입춤', 무속장단에 궁중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민속춤으로 섬세한 발 디딤새가 특징인 '태평무', 선비의 상징인 학의 깨끗하고 고고한 자태를 역동적이면서 남성다운 춤사위로 풀어낸 '한량무', 춘향과 몽룡의 고전 소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춤으로 만든 '사랑가', 농악에서의 벼구놀이 형태의 민속무용으로 풍물과 호적이 신명을 이끌어 내어 경쾌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김묘선류 '소고춤'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극찬을 받는 화려한 '부채춤'으로 무대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Under the title of "Autumn, drenched with scent and color", Cho Namgyu and Song Jeongeun Dance Company presents both traditional and newly interpreted dance pieces that have been highly praised since the company's founding in 1991.

In 'Janggochum', a musical instrument and dance moves harmonized in Nongak(Farmer's percussion band music) accompaniment. 'Buchaeipchum' featuring 'Han(sorrow), Heung(merriment), Meot(style), Tae(silhouette)': 'Taepyeongmu' a folk dance praying for the great peace of the country in shamanic rhythms with delicate footsteps: 'Hallyangmu' describing long and elegant moves of a crane which is a symbol of aristocrat with dynamic and masculine dance moves will be followed in sequence. In 'Sarangga', dancers visualize the classical tale of the 'Chunhyangjeon', the love story between Chunhyang and Mongryong. A folk dance, 'Sogochum' of Kim Myoseon school shows cheerful moves of dancers in pungmul(rural folk percussion) and hojeok(a conical double-reed pipe)accompaniment. Lastly, splendid 'Buchaechum' which is appreciated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will finalize th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장고춤 Janggochum
- 02 부채입춤 Buchaeipchum
- 03 태평무 Taepyeongmu
- 04 한량무 Hallyangmu
- 05 사랑가 Sarangga
- 06 소고춤 Sogochum
- 07 부채춤 Buchaechum



총연출 조남규(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예술감독·안무 송정은(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사회 조남규
출연 이성희, 이주연, 임은주, 김중우, 김윤아, 장두래, 김수희,
 임새솔, 이주영, 안예은, 유수연, 배수진, 이경민, 김은비

통소다

Tungsoda

2015. 11. 2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국의 통소, 일본의 샤쿠하치, 남미의 께나 악기를 중심으로 재질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각 나라만의 고유한 전통음악들을 선보이며 다문화 가치 확산과 문화교류로 본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통소곡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아스랑가'와 '농부가'를 선보인다. 관객과 함께 부르는 '돈돌날이', 맑고 깨끗한 선율의 '청성곡', 통소 반주로 하는 '시창 십이난간'에서 한국의 통소와 비슷한 샤쿠하치와 께나 연주 그리고 즉흥적이며 다채로운 가락의 함경도 통소곡 '신아우'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바람과 흘러가는 구름을 통소와 양금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With the purpose of spreading the value of multiculturalism and promoting cultural exchange, three different wind instruments: Korean Tungso, Japanese Shakuhachi, South American Quena will be used to play each country's traditional music.

In the beginning, two most played pieces of Tungso solo 'Asrangga' and 'Nongbuga' will be presented. 'Dondolnari' singing along with the audience: 'Cheongseonggok' with clear melody will be followed in sequence. In 'Sichang Sibinangan', Japanese Shakuhachi and South American Quena that are similar wind instruments to Korean Tungso are played together in Tungso accompaniment. Also, 'Sinawu' a tungso solo piece of Hamgyeongdo province with impromptu and diverse rhythms will be presented. For the finale,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accompanied with Tungso and anggeum(a dulcimer) depicts cool breeze and flowing clouds of Autumn.

공연순서 PROGRAM

- 01 죽백초등학교 '아스랑가, 농부가' 'Asrangga, Nongbuga' by Jugbaek Elementary School
- 02 세종통사모 관객과 함께 부르는 '돈돌날이' 'Dondolnari' sing along with the audience by Sejong Tungsamo
- 03 김관희 '청성곡' 'Cheongseonggok' by Kim Gwanhee
- 04 이남민 '시창 십이난간' 'Sichang Sibinangan' by Lee Nammin
- 05 고바야시 타츠야 '켄료부시' 'Kenryobushi' by Kobayashi Tatsuya
- 06 가우스이 '안데스 음악' 'Andes Music' by Gausai
- 07 동선본 '신아우' 'Sinawu' by Dongseonbon
- 08 김충환 '동산에 올라' 'Climbed the hill' by Kim Chunghwan



대표 이보형(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사회 이진원

출연 동선본, 김관희, 동선백, 김충환, 김백광, 이남민, 최브림, 김진석, 고바야시 타츠야, José Farinango, Percy Lee, Casar Maigu, William Pariapaza, Michael Guajan, 김유라, 김주희, 권형택, 김창순, 이명순, 박인배, 정상모, 정혁기, 조용성, 이재영, 신하준, 이승현, 강선모, 권도혁, 김세아

김광자의 민속무용

Folk Dance by Kim Gwangja

2015. 11. 2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민족역사의 민중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민족 특유의 민속무용을 선보일 것이다. 첫 무대는 5색구슬로 화려하게 장식한 화관을 쓰고 긴 색한삼(色汗衫)을 공중에 뿌리면서 추는 화사하고 고운 춤 '태평성대'로 공연의 막을 올릴 것이다. 이어서 평민 계급의 역사적 희로애락의 감정이 진하게 반영되어 소박한 생활 감정을 표현한 '살풀이춤'과 '입춤', 왕비와 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으로 창작한 '태평무', 흥겨운 농악반주에 어우러져 아름다운 몸짓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흥과 멋을 살린 '소고춤', 마지막으로 꽃 그림에 붉은 깃털로 장식한 부채를 들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부채춤'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국무용을 대표하는 춤 구성을 통해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민속무용의 흥과 멋을 알고 신선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In this program, traditional folk dance piece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out Korean history will be presented.

In 'Taepyeongseongdae', dancers wearing coronets decorated with 5 different colored beads perform elaborate and delicate dance moves while swirling a long scarf in the air. 'Salpurichum' and 'Ipchum' describing 'Hee(pleasure), No(anger), Ae(sadness), Rak(enjoyment)' of the commoners will be followed. 'Taepyeongmu' has been reinterpreted with the story of a king and a queen dance in person. 'Sogochum' in which dancers show sophisticated yet dynamic movements along the exciting Nongak rhythm: 'Buchaechum' of which performers holding fancy fans will be performed on the finale. Being composed of representative pieces of Korean dance, this program will give the audience opportunities to both appreciate the superiorit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experience merriment and mirth of folk dances.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성대 Taepyeongseongdae
- 02 살풀이춤 Salpurichum
- 03 입춤 Ipchum
- 04 승무 Seungmu
- 05 태평무 Taepyeongmu
- 06 소고춤 Sogochum
- 07 부채춤 Buchaechum



대표 김광자(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출연 김광자, 조명숙, 송수지, 조윤희,
김화영, 김재경, 황오미, 김은희,
이은주, 김명래

전통예술원 '유흥'의 有~흥!!

Have~Mirth!! by "Uheung" from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2015. 11. 0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의 음악인 '국악'을 일반 대중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흥을 느끼고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우리의 일상에 해가 되는 여러 액살과 액운을 물리치고 원하고 기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빌어주는 축원 덕담인 '비나리'를 선보인다. 이어 유흥만의 색깔을 입혀 재해석한 삼도사물놀이,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들썩이는 최종실류 한혜경제 '소고춤', 민속무용의 흥을 한껏 살린 박병천류 '진도북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와 제주도 창민요인 '너영나영'을 관객과 함께 부르며 흥을 돋운다. 마지막으로 신명나는 사물판굿과 각종 개인놀이 및 관객과 함께 흥을 나눌 수 있는 놀음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 pieces will be presented. In this performance, the audience not only appreciate 'gugak' but they could share the excitement and mirth with the performers.

'Binari(or 'to pray')', a shamanistic call to all deities for happiness, health and wealth for the living, lifts the curtain. "Samdo Samulnori" reinterpreted by adding "Uheung"'s characteristic: "Sogochum" of Choi Jongsil style making the audience move their shoulders ups and downs naturally with exhilaration: "Jindobukchum" of Park Byeongcheon school featured with merriment of folk dances will be followed in sequence. Later, a group of performers sing "Sarangga" of Pansori Chunhyangga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NESCO and "Neoyeong Nayeong" of Jeju folksong together with the audience. In the end, exciting Samul Pangut and individual performer's solo act will finalize the entir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비나리 Binari
- 02 사물놀이 Samulnori
- 03 소고춤 Sogochum
- 04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5 판소리 Pansori
- 06 사물판굿 Samul Pangut



대표 양태양(인천광역시 연수구립 풍물단 약장)

출연 양태양, 조태욱, 이동현, 권재환,
이정목, 이정대, 권기호, 노민우,
서은선, 전민지, 이연주, 배지은